

발 닿는 곳마다 '평화의 등불' 밝히리



3월1일, 남원 실상사 도법(가운데)·수경(오른쪽)스님, 이원규(왼쪽)시인이 '생명평화등불'에 앞서 제를 올리고 있다.

사진=이준엽 기자

생명이 하나되는 '다르마길' 떠납니다

지리산권 순례구간

- 구례군 : 3월1~9일 전남 지리산 노고단 ~ 토지면 외곡리 (105km)
노고단 기도회(오전 10시),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반달곰방사프로젝트팀, 박건전수회, 판소리동편제전수회, 포장마차 지역민간담회
- 하동군 : 3월10~20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 옥중면 (120km)
섬진강 생명평화의 밤 행사(13일, 자연농업문화센터, 가수 김원중 등 나팔꽃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군수와 섬진강벚꽃길 살리기모임 간담회(14일)
- 산청군 : 3월21~2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 생초면 (107km)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외곡리, 방곡리 민간인학살지역 천도제
- 함양군 : 3월30~4월7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 마천면 (119km)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녹색대학, 함양시민연대, 원불교 등 간담회, 주요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민간인학살지 천도제, 생명평화의 나무심기
- 남원시 : 4월8~4월 18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 남원읍 만민인총 (83.5km)
만민인총에서의 지리산권 탁발순례 회합(14일 오후 2시), 함양군 마천면 인산자연학교 불우이웃돕기 행사, 지역주민과의 사랑방좌담회, 평화의 등불과의 만남, 지자체 공무원 면담, 주요문화유적지 방문
- 4월 19일 이후 제주도행 예정



도법 스님-수경 스님-이원규 시인 '생명평화탁발' 떠난 첫 날

85년 전, 이 땅의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전명했던 3월 1일, 다시금 그날, 지리산 노고단에서 '생명평화' 씨앗이 싹틈을 하늘에 고하는 제(祭)가 열렸다.

오전 10시,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인과 환경단체 회원, 등반객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식이 시작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인종, 계급, 성, 나이 등 우리들은 스스로가 만든 차별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중심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문명은 뜻 생명을 고통의 아수라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질서아래 지구위의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생명평화탁발 순례의 시작을 하늘에 고하는 고천축문(告天祝文)에 이어 '생명평화의 경(經)'이 독송됐다. 이 경은 지리산의 모든 생명이 하나 되어 합송됐다. "생명평화의 빛들이여! 다르마(法)·깨달음의 길 위에서 자연은 뜻 생명의 뿌리이고, 뜻 생명은 자연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다르마의 길을 어기고 인간중심, 내 나라 중심, 내 가족 중심, 자기 중심의 이기심으로 살아온 왜곡된 자기 사랑의 삶을 뼈아프게 참회합니다. 다르마의 길 위에서 곁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찬탄하며 다르마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경을 세상에 퍼고자 순례군 셋이 나섰다. 지리산 실상사 도법(55)스님과 수경(55)스님 그리고 지리산 지킴이 이원규(42) 시인. 삼장법사 일행이 경전을 찾아 서천곡으로 향하듯, 선재동자가 법을 구하고자 선지식을 찾아 나서듯 이들은 '생명평화의 경'을 안고서 길을 떠났다.

경건한 의식이 끝나자 수경스님을 향해 문규현 신부(59·부안분당)가 다가간다. 서로를 알아보고 운문을 감싸 부둥킨다. 길 잃은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듯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린다. 이들은 지난해 '새만금 살리기' 3보1배 정진을 묵묵히 걸고 했다. 문규현 신부는 또다시 끝없는 수행길을 떠나는 도반을 찾아 지리산 정상까지 한걸음

3년간 1만2천km, 하루평균 12km 도보 남쪽에서 북으로 면(面) 단위 순례 '평화의 등불'에 10만명 동참 이끌터

에 달려온 것이다.

12시 30분, 주먹밥으로 간단히 허기를 때우고 본격적인 도보순례 길에 나섰다. 생명평화 탁발은 하루 12km 가량 걸으며 면(面)단위로 순례한다. 먼저 지리산권 1500리를 49일간 걷는다. 그 후 4·3의 현장 제주로 건너가 순례한 후 남에서부터 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간은 3년 예정, 하루 평균 12km, 총 1만2천km를 걸으며 전국을 순례한다. 북한 길이 열리면 더 길어질 것이다.

이들이 탁발순례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만나겠다'는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종교 등에 분별을 두지 않고 만날 것이다.

"부처님은 평생 길에서 탁발하며 사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굶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라 설교하셨습니다. 돈, 땅, 권력, 명예 등 어느 것이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도법 스님은 "이렇게 탁발하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민과는 함께 일을 하고, 지역감정으로 다투는 곳에서는 화해의 무대를 열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에서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순례단은 생명평화탁발을 통해 평화를 위해 공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평화의 등불' 서약서를 받는다. 순례단은 이 서약에 10만 명이 동참하면 비로소 지리산에서 시작된 생명평화결사가 세계평화를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

구례를 향한 첫걸음은 지리산을 내려가는 산길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차량만 지나질 뿐이다. 산 아래에 다다르면 누구를 만날 것 인지... 그날 오후 내내 설레임과 기대를 안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지리산=이준엽 기자

탁발 순례 3인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의 단장은 도법스님이다. 수경스님이 도감이고 이원규 시인은 총괄진행을 맡고 있다. 이들 셋이 만난 것은 2000년 지리산살리기 팀 백지화추진위가 구성되면서이다. 그때부터 셋은 지리산을 '청정국도 1번지'로 선언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명평화를 외쳤다.

도법스님과 수경스님은 30년을 이어온 도반이다.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빛과 그림자마냥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수경스님은 한마디로 '밀어붙이기' 스타일이다. 묵묵히 지켜보다가 한 마디 '툭' 던지고 일사천리로 밀고나간다. 선방에서 살다가 우연히 들른 환경단체에 감동하여 하루아침에 불교환경운동 선봉에 나섰다. 이번에도 그랬다. 탁발순례를 준비하는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3보1배 하자'는 것이다. 참석자 모두가 경악했다. 지난해 부안에서 서울까지 3보1배로 무릎이 마가져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찌하는 것인가. 지난해 무릎수술 날짜가 잡혀있던 순례일정을 바꿀 수 없었다며 수술을 포기했다.

'지리산 살리기' 인연, 불교환경 위해 한마음

반면에 도법스님은 합리적이다. 이번 생명평화탁발에 앞서 스님은 2000년부터 100일기도, 천일기도, 지리산 위령제, 국토도보순례 등을 주도했다. '생명평화'를 화두삼아 한시도 놓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번 탁발순례이다. 엄밀히 말하면 탁발진군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님은 금산사에서 화엄학원을 개설했으나 6년만에 중단했다. 그때의 절망감이 탁발진군을 생각해 했다. 3년간의 농민들을 찾아 일도 하고 이야기하며 공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96년 금산사 대적광전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본산인 금산사 복원이 먼저였던 것이다.

이런 두 스님 곁에 자타가 인정하는 지리산 지킴이 시인 이원규 씨가 동행한다. 이씨의 지리산 지키기는 남다르다. 7년 전 아예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에서 지리산을 노래하며 살고 있다. 그는 <지리산에 오시려거든>이란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등산은 말고 입산하러 오시길./등산은 정복욕과 교만의 길이지만/입산은 자연과 한 몸이 되는/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특별기획안내 <중국 제1의 관음도량 법회 - 상해/보타산/낙가산 5일>

- 출발일 : 2004년 3월, 4월 ○ 출발지 : 인천국제공항, 김해(부산) 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 판매가 : 인천출발 - 69만원 / 부산, 대구 - 67만원
- 11명당 1명 무료 직승, 10명이상 출발가능 / 각 단체별 단독 여행(10명이상) 가능

불교 성지순례 <중국 4대불산>

1. 관음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 오대산 /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달라이라미의 성지 - 티벳 / 낙산대불 8일 169만원

○ 요금포함내역(공동여행)
-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4성급, 2인1실), 현실적 관광 및 식사, 차량료, 선박료,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기금, 1억원 여행보험
- 불포함사항: 여권, 비자비, 현지 기사/가이드비, 개별비용 - 비고: 11명당 1명 무료, 10명이상 출발가능, 인솔자 동행

고품격 여행과 윤년 제주도 삼사순례! 소원성취 방생법회를 최남단 마라도에서...

- ▶ 일요일 출발 - 225,000원 ▶ 화, 목, 토 - 248,000원 ▶ 금요일 출발 - 289,000원

<요금 포함내역 및 특징>
왕복항공료, 관광 1급호텔 2박, 조식 2회, 중식 2회, 마라도 유람선, 마라도해상국립공원 입장료, 여미자, 퍼시픽랜드 (돌고래, 바다사자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 제주 10경 관광안내, 차량료, 여행자보험

<관광일정 - 일요일 출발 기준입니다>

제 1일	제주공항 도착 → 마라도 '기원정사' 방문 및 방생법회 → 오! 설복(설복초밥 및 뮤지엄)방문 → 호텔 투숙 및 저녁공양(자유식)
제 2일	호텔 아침공양 후 → 동양 최대의 식물원 '여미자' 관광 → 제주 최대해안관광지 '주상절리'를 관광 → 점심공양 돌고래, 바다사자의 환상적인 쇼 '퍼시픽랜드'를 관람 → 동양 최대의 사할 '양천사' → 밀감/버섯 농장 견학 '정방폭포' (혹은 천지연 폭포)를 관광 → 호텔 투숙 및 저녁 공양(자유식)
제 3일	해미안 녹차/해수 사우나(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 아침공양 → 시내에서 쇼핑 → '한라산 내 신비의 도로' → '절물휴양림'에서 삼림욕!!! → '조형물 체험' 또는 '몽골리안 마상쇼' 관광 → 성당인목마을 관광 → 점심공양 → '동일불사리대입교편사' 방문 → 제주공항으로 이동 → 김포공항 해산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